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 사회의 갈등: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최윤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1.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 벽이 튀르키예인들의 머리를 덮쳤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열려 양 국민들이 뛰어나와 환호하고 1990년 통일조약을 맺어 46년간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하나로 합해진 이후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베를린 장벽 위에서 기뻐하고 열광하는 독일인들의 모습이 아직 전 세계인들의 기억에 선한데, 통일 이후에는 사회적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더불어 통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갔는지, 누가 통일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 들어간 희생자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구 서독의 흡수통일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구 동독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희생자로 거론되었고 이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불안, 불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또한 젠더 관점에서 구 동독의 여성집단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졌다. 과거에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이 통일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였음이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또 다른 희생자 사회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외국인과 이주민들이다.

통일 이후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 중 ‘민족’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 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재분류되어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또한 통일 이후 10여 년간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독일인의 불만이 급증하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 벽이 튀르키예인들의 머리를 덮쳤다”라는 말에서 보듯, 구 서독과 구 동독의 가장 큰 이주 노동자군을 형성했던 튀르키예계 시민들과 베트남계 시민들에 대한 테러가 폭행과 방화의 형태로 극렬하게 자행되었다. 우리는 통일 독일의 이러한 갈등과 폭력 사태를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튀르키예인들과 베트남인들은 어떤 경로로 독일에 가서 살고 있었는가? 이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테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러한 테러와 폭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미래에 방지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당시 독일 내에 있었던 많은 이주 작가들은 통일 이후에 자신들이 겪었던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문학이라는 각 개인들의 구체적이고 압축적이고 생생한 삶의 형식으로 재현해 내었다. 아직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도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갈등과 문제를 겪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고 단일민족 의식이 유독 강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민족의 통일이 불러올 다문화사회와의 갈등은 충분히 미리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 독일의 이주노동자들

구 서독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부흥과 더불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재편이 되면서 사회의 하층부 기반 노동을 담당하는 인력이 대거 부족하게 되자 우선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시작하여 점차 튀르키예 등 전 지구적으로 인력을 구하게 된다. 한국인 광부, 간호사의 파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노동자들은 ‘손님 노동자 Gastarbeiter’라 불리어졌으며,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대략 1,40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구 서독으로 왔고, 이중 300여만 명이 남아 이민자가 되었다. 출신 국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튀르키예, 폴란드,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많았다(2009년 독일 통계청 자료).

이들은 대체로 3년 계약을 맺고 왔고 처음에는 '로테이션 원칙'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숙련 공을 원했던 고용주와 수입이 필요했던 노동자 모두가 계약 연장을 원하여 이들은 계속 독일에 남게 되었다. 대다수가 홀로 노동자로 왔다가 규정이 바뀌고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불러오게 되고 이들의 신분도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 경험이 적었던 독일 사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주류사회와 이주민 모두 통합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성의 의미를 담은 스위스의 유명 작가 막스 프리쉬의 문장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는 이 문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타지에서서의 외로움, 차별, 향수, 적응의 어려움을 문학의 형식으로 많이 호소하였다. 처음에는 그들의 모국어로 글을 쓰다가 점차 독일어로 글을 써 독일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제 그 작가군이 불어나 수백 명에 이른다. 이들 작가들과 영화감독, 예술가들은 독일 문화의 새로운 개혁 흐름을 만들어 큰 자국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구 서독은 한국인 광부 간호사를 포함하여 이들 손님 노동자들을 정식 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고 불러왔고 독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어와 독일문화를 익힐 기회가 있었고 때문에 작가들도 배출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 동독 역시 베를린 장벽 쌓기에서 보듯 노동자의 유출이 심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부족하여 폴란드, 헝가리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노동력을 많이 불러왔다. 이들은 '계약 노동자 Vertragsarbeiter'라 불리어졌으며 구 서독과 비교하여 수도 적고 일반인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고 계획경제 하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 사회적 갈등도 적었다. 초창기에는 동독의 선진 산업기술을 배운다는 의미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공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통일 직전에 독일에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로는 15,000여 명의 베트남인이나 5,000여 명의 앙골라, 모잠비크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으나, 사회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주로 베트남 노동자들만 계속 남게 되었다. 고국에서의 보다 암울한 현실은 이들의 귀국 발목을 잡았다. 이후 2008년에 열린 베를린의 한 전시회는 이들 계약 노동자들이 동독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음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3. 호이어스베르다, 로슈토크, 뮐른, 졸링겐의 오명들

서독의 동독의 흡수통일로 인하여 구 서독인들의 삶은 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구 동독인들의 삶은 새로운 사회 체제에 적응을 해야 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기쁨을 만끽한 시간들이 지나고 점차 구 동독의 많은 산업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었으며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기대했던 바와 달리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구 동독인들은 새로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통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는 열등감이 만연했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이 강화되고 반외국인 정서가 만연하였으며 신민족주의가 부상하여, 주로 일자리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범죄율을 화두로 이주민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터뜨리고 문제로 삼았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반 외국인 정서와 더불어 새롭게 반유대인 정서가 부상하여 급격히 높아져 갔다.

1991년부터 호이어스베르다, 로슈토크, 뮐른, 졸링겐 등지에서 폭행, 방화 등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었다. 주로 구 동독 지역에서 벌어졌으나 지명에서 보듯 나중에는 구 서독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폭력과 테러에 대한 사회적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외국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독일 사회 내부의 문제라는 데 합의가 모아졌다. 신민족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독일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타자에게 투사했다는 설명이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실제 구 동독에는 외국인 비율이 현격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테러에 대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이러한 투사설을 입증하며 이는 '외국인 없는 외국인 증오'라 불리웠다.

4. 통일 이후 정체성의 혼란

통일 이후 독일 사회도 이주민 사회도 정체성의 집단적 위기를 겪었다. 구 동독과 구 서독 국민들은 나치 범죄 이후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었던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통일 독일의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했다. “독일 민족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졌다. 오랫동안 이 상자는 닫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다시 사람들은 독일인이라고 생각해야 했다”고 작가 세노작은 쓰고 있다.

이주민들 또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는데 민족 통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밀려난 주변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구 서독의 경우 분단 상황에서는 이주노동자로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겪기는 했으나 이방인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였고 가장 주된 요소는 아니었다. 구 동독의 경우에도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기에 이들은 이데올로기가 다른 서독 주민들보다 동독 주민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통일과 더불어 ‘한 민족’이 강조되면서 이 민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은 새로운 정체성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과 테러까지 겪게 되자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통일 이후 고조되었던 반 외국인 정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이미 500여 명이 넘는 이주작가들의 작품에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70년대부터 처음에는 자기들의 모국어로 그리고 독일어를 익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헤르타 뮐러, 에미 네 세르기 외즈다마, 다와다 요코, 테레지아 모라 등의 수많은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작가 그룹은 크게 이주노동자 그룹, 유대인 그룹, 2세들의 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이거나 유대인 그룹은 통일 후에는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몰린 상황을 많은 작품에서 주제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의 작가 흥 구르스트는 〈누가 이방인인가?〉라는 작품에서 통일 독일에서 베트남인과 동독인의 서로 엇갈리는 시각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베트남과 독일이라는 공통된 운명을 생각하며 기차의 같은 칸에 올라 탄 동독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나, 그들은 아시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타자화하고 적대감을 표시할 뿐이다. “안녕하십니까?”라고 내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했다. 동독 사람들이 그들 조국의 다른 부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보는 모두를 기쁘게 한다. 맞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저놈이 나를 계속 저렇게 뚫어지게 보면 내 저놈을 당장에 내쫓을거야’라고 조종사 점퍼를 입은 자가 말했다.”

특히 독일 사회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하여 독일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2세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야데 카라는 〈안녕 베를린〉이라는 소설에서 스스로를 베를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하잔을 통해 자신들을 바라보는 낯선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표현한다. “내 까만 머리 때문에? 아니면 내 찰리-채플린-가방 때문에? 왜 저렇게 보는 거지? 나는 갑자기 베를린 지하철에서 낯선 느낌을 받았다. 나는 사실 베를린 지하철과 같이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역을 알고 모든 다리도 알고 모든 커브 길의 소음을 알고 있다. 나는 거의 베를린 지하철 노선도를 뇌에 문신해 넣은 듯 알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 영화감독 볼프는 하잔에게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청소년 배역을 맡긴다. 하잔은 통일 독일의 공간에서 튀르키예계 주민에 대한 대표적 부정적 선입견을 영화에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친구가 거리에서 실제 테러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보자 독일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일단 이주민 테러 사태가 진정된 후에 외즈다마는 한 소설에서 세계 여권을 꿈꾼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손님에 불과해.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어. 우리 모두 가게 될 거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야.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여권이든 최고일 텐데. 세계 여권 말이야.”



5. 한반도의 미래?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로는 지구상에서 한국 한 나라만 남았다. 강제로 분단된 독일도 오래전에 통일을 이루었는데 한국은 스스로 원했던 분단 상태도 아닌데 이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또한 이주민에 대한 테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통일 구상에 있어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좌든 우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미 한국에서 결혼 이주나 노동 이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과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은 '지역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즉 예컨대 이들은 한국인은 아닐지라도 서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도 역시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며 통일이 재편하고 만드는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들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족의 통일이 주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출신의 이웃들을 같이 꺼안을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통일 공간 구상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통일 이후 불거졌던 이주민에 대한 테러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만의 노력으로 사회통합이나 다문화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류사회인인 우리 역시 이들과 화합하고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 소개 최윤영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학력 독일 Bonn 대학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독문학 석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경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한독문학번역연구소장
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Fellow

저서 「엑소포니, 다와다 요코의 글쓰기」 (2020, 제이앤씨)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201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독일, 민족, 그리고 신화」 (201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카프카, 유대인, 몸」 (2012, 민음사)
「한국문화를 쓴다」 (200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외 다수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